

## 교회소식

한울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 예배회복**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의 삶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고갈된 채 교리에 대한 고백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고리들은 옳습니다. 그런데 고백만 있을 뿐 그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 권사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있습니다. 말씀은 송용섭목사(위례비전교회)께서 전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주일입니다.
- 남성조찬기도회** 2.3(토) 아침 7시에 있습니다. 충성2셀(신실경,이춘기)에서 섬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남성들의 거룩한 손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충성2셀명단: 염유선 황상욱 김무용 박명옥 신동규 정건모 조기운 진병논 하영복 허인태
- 유치부,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2.3(토) 유치부는 10:30부터, 초등부는 10시부터 오후7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 찬양사역위 헌신예배**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모든 찬양대, 찬양팀이 함께합니다.
- 1월 암송대회** 다음 주일에 찬양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 금주의 모임 - 정기당회** 오늘 오후 2시에 목양실  
- 3040모임 주일 오후 1:30 비전홀  
- 다음세대기도회 수, 오후 8:30 비전홀  
- 어머니기도회 스텝모임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 50여전도회 월례회 3부예배후 새가족실  
- 중보기도모임 목, 오후 8시 자모실  
- 오카리나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원로목사님 동정**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대만신학교 강의차 출국하십니다.
- 축하** 이승규집사, 이보라성도(진옥경집사) 득녀, 이경은사모(이춘기장로, 김재순권사) 득남
-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일주일 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b>2월 성경</b>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b>2월 암송</b>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b>금주암송</b>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2:19)					
<b>1~2월 목회계획</b>	<b>2.11</b> 사론찬양대, 교육위원회모임, 셀별예배(설명절관계로) <b>2.14</b> 재의 수요일 <b>2.18</b> 사순절 첫번째 주일 <b>2.25</b> 사순절 둘째 주일, 선교주일, 확대당회, 장학헌금주일 <b>2.28(수)</b> 어머니기도회 개강 <b>3.3(토)</b> 남성조찬기도회(충성3셀)					
<b>2월 예배 봉사위원</b>		<b>1주</b>	<b>2주</b>	<b>3주</b>	<b>4주</b>	<b>5주</b>
	<b>1부기도</b>	송귀남	유재숙	홍영희	이효임	
	<b>2부기도</b>	정복순	김원중	신실경	염유선	
	<b>3부기도</b>	노기수	김종균	이춘기	장세득	
	<b>수요특송</b>	은혜1,2셀	은혜3,4셀	은혜5,6,7셀	소망1,2,3셀	
	<b>금요특송</b>	총남선교회	설명절	하트행기도회	총여전도회	
	<b>주방봉사</b>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회	3040	

### 예배 및 모임안내

예배	시간	청소년부	주일	오전 9:00
1부예배	주일 오전 7: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수요예배	수	오후 7:00
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셀리더교육	수	오후 8:00
4부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어머니기도회	수	오전 10:30
3040	주일 오후 1:20	심야기도회	금	오후 9:00
찬양예배	주일 오후 7:00	남성조찬기도회	첫째 토	오전 7:00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다음세대기도	수	오후 8:30
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전도대	화	오후 3:00

### 오시는 길



HANWOOL · PRESBYTERIAN · CHURCH

(창립일 1984.3.18)

2018년 1월 28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울교회



원로목사 이형우  
담임목사 최영선

### 주일예배

1부(7시)김운희목사/ 2부(10시) 서명희목사/ 3부(11:30) 최영선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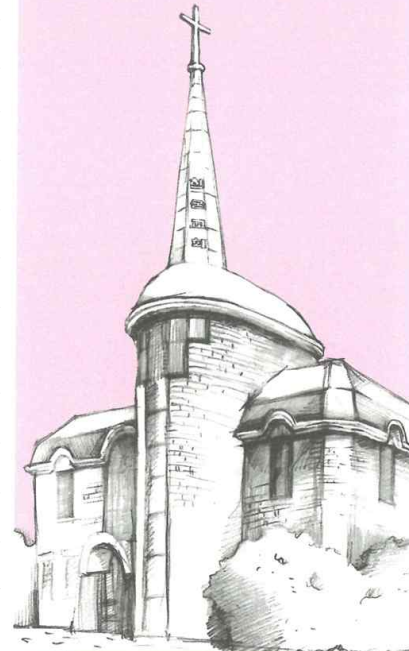
습 경 배 찬 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함께
습 참 회 기 도		다함께
습 사함의확신		엡 5:26~27
습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습 찬 송		10장
기 도	소정순권사/ 김길남집사/ 김종환장로	
주 기 도		다함께
습 성 경 봉 독	에베소서2:11~22(신,312p)	
2 부 찬 양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험시바중창단	
3 부 찬 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시온찬양대	
예 물 봉 헌		50장(통 71)
교 회 소 식		담임목사
말 씀 선 포	“그때에, 이제는, 이제부터”	담임목사
찬 양 기 도		305장
설 교 자		설교자
습 축 복 기 도		담임목사
습 송 영		찬양대

습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06335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09길 9(대치 A 213동 앞)

TEL 02 2226 1004 FAX 02 459 0191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교회



www.hwc.or.kr

청년예배(주일 오후 2시)	
경배찬양	TOM 찬양단과 함께
기 도	박수지자매
주 기 도	다함께
참회기도	다함께
사함확신	엡 5:26~27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경봉독	창 6:5~8
특 송	박수지셀
말 씬	그래도
봉 헌	심상현전도사
주 기 도	다함께
광고환영	말은이

### 권사 헌신예배

(주일 오후 7시)	
인도:노숙희권사	
경배찬양	조이 찬양팀
찬 송	259장
기 도	이원옥권사
성경봉독	요15:1~8/정순덕권사
특 송	권사회
말 씬	열매
	송용섭목사(위례비전교회)
교회소식	담임목사
축 도	담임목사

### 수요성경공부(수 오후 7시)

인도: 최영선목사	
찬 양	다함께
성 경	요17:6~11
특 송	믿음 6.7셀
말 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최영선목사
주 기 도	다함께

### 금요기도회(금 오후 9시)

인도:노숙희권사	
찬 양	다함께
성 경	눅14:26~33
특 송	권사회
말 씬	중심에 누가?
	최영선목사

### 새벽기도회(월~금 5:30)

인도: 담임목사

〈금주의 말씀〉	그때에, 이제는, 이제부터	엡2:11~22
----------	----------------	----------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때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때는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오랜된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단순히 민족을 구분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일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였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는 버림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받지 못할뿐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것도 공급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율법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율타리도 되지만 동시에 분리하는 담도 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세상과 하늘 사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혼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몸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미 성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이며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 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가깝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관계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한 새 사람을 만드셔서 더 이상의 구별과 차별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고 우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영역을 하나로 만들고 그의 몸으로 원수 됄을 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기로운 예물	
<b>십 일 조</b>	이형우(채광수) 강연향 권문자(전흥기) 김달수 김삼례 김수남 김연호 김용심 김 조 김창순 김현정 남궁묘순 노숙희 박미화 박순영 석호길 송귀남 유해청(정복순) 이소희 이일레 이재철 이정순 이춘기(김재순) 이효임(모상원) 전영란 정행자 최길목 조기운(염선후) 최본순 최승혜 한희숙 황상욱
<b>감사헌금</b>	이형우(채광수) 최영선(백경임) 고갑례 고흥규 권문자(전흥기) 김경숙 김기모(장창일) 김무순(안은주) 김상경 김연호 김종균 김옥순(김무용) 남기인(진향난) 박정례 윤치영(방보나) 이덕순 이소희 이시온(최승혜) 이재철 장세득 정건모 무명2
<b>생일감사 일천번제</b>	김인숙b 조아현 최영기(안재숙) 김상경(손경철) 김상경(손정은) 김수남(정영훈) 남옥순(최승혜) 최승혜 신대진(이묘선) 이소희(황경준) 이경은(경선,경진) 이춘기(김재순)
<b>선교헌금</b>	권문자 김보경 김정희 김창순 노숙희 양복례 유해청(정복순) 이소희 정건모 진옥경 최길목 하영복 황상욱
<b>전도헌금</b>	유해청(정복순)
<b>구제헌금</b>	유해청(정복순)
<b>목양헌금</b>	이소희
<b>장학헌금</b>	남기인(진향난) 노숙희 석호길 이소희 최영기(안재숙)
<b>성미헌금</b>	강연향 권문자 김경자 김달수 김삼례 김수남 김연숙 김응기 김정희 김창순 민명자 이옥순 이재철 전영란 조종순 진복순 황연선
헌금계좌：농협 351-0200-5816-43 (한울교회)	

### 한울교회 공동 기도제목

-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그의 뜻을 행하는 교회, 셀, 가정, 성도가 되게 하소서.
- 한울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 대치, 대청아파트 각 층마다 한울교회의 셀과 일원동에 30개 셀을 세워주시고 한울교회 율타리를 대치아파트를 너머 강남, 성남과 모든 나라로 넓혀 주소서.
- 2018년에 한울교회 새가족 100명이상을 정착시켜 주소서.
-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 섬기는 선교지 및 기관

**교회** 양지한울(안성준) 평안(최경일) 하늘빛소망(안은규) 달전(유운종) 예수비전(박형미) 지명(양완식) 화순월광(임영범) 포천양문(장재공) 강변(김민우) 제천조은(염자룡) 홍영민(해남상구시)

**해외** 윤준식(만) 최미선(연변과기대) 조선족교회(정\*\*) 이현민(뉴질랜드) 진은숙(태국) 김근영(몽골) 강형창(대만) 홍길주(미얀마) 하민정(인도) 이영철(터램프)

**기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기아대책 예함장애인선교회 장기기증운동 수서경찰서경목실

###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b>원로목사</b>	이 형 우	<b>위 임 목 사</b>	최영선(010-6826-0691)
<b>부 목 사</b>	서명희 김윤희	<b>전 도 사</b>	심상현 김미중
<b>협력목사</b>	한은도	<b>은 퇴 장 로</b>	윤홍섭 이소희
<b>시무장로</b>	노기수 김종균 이춘기 장세득 황상욱 김종환 고흥규		
<b>지 휘</b>	백정태	<b>찬양인도</b>	심상현 권대호
		<b>반 주</b>	염선후 송은영 신성소 최지혜